

어린이 상상력 자극 ‘기적의놀이터’

정읍시, 8월말까지 시범운영
창의력 키우는 참여형 놀이 공간
네트·별집놀이대 등 놀이기구 다채

아이들 마음껏 뛰어 놀며 상상의 나라를 펼친다.
정읍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창의 놀이터로 주목 받는 ‘기적의 놀이터’의 본격 개장을 앞두고 1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뒤 9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스스로 놀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참여형 놀이 공간이다.
쌍암동 내장산문화광장 일원에 1만9000㎡ 규모로 조성된 ‘기적의 놀이터’는 자연과 어우러진 넓은 부지 위에 ▲개구리발놀이대(유아 놀이공간) ▲햇님테이블과 놀이창고 ▲거미줄놀이터 ▲단풍나무놀이터 ▲모래놀이터 ▲골목길놀이터 ▲숲놀이터 등 다채로운 7개 테마의 공간을 갖췄다.
특히 단풍나무 형태의 대형 놀이기구는 공중다리, 네트놀이, 원통형 슬라이드, 별집놀이대 등 여



정읍 내장산문화광장 일원 ‘기적의 놀이터’.

러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아이들의 탐험심과 상상력을 한껏 자극한다.
기존의 틀에 박힌 놀이터가 아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인 공간 설계와 안전하면서도 도전적인 놀이 구조는 ‘전국 최고 수준의 기적의 놀이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아

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모습이 정읍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며 “기적의 놀이터가 아이들에게는 꿈터가 되고 부모에게는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쌍화차 거리 체험형 테마거리 전환해야”

서향경 정읍시의원, 스토리텔링·식음료 개발 등 제안

서향경(사진) 전북 정읍시 의원(수성동·장명동)이 “쌍화차 거리를 쌍화차 한잔과 함께 정읍의 역사와 인물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체험형 테마거리로 전환하자”라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루 갖춘 쌍화차 거리에선 정읍 고유의 전통문화를 기대하며 방문한 관광객들이 짧은 시간 머무르며 아쉬움을 안고 떠나

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활성화 방안으로 ▲거리 전 구간에 스토리텔링 기반의 안내판·벽화·관광지도·포토존·쉼터·야간경관 조성 ▲정읍 지황의 역사·가치·효능을 전문적으로 알리는 상설홍보관 건립 ▲쌍화차를 활용한 건강 디저트·음료 개발 ▲조곡천 돌봄마당 공영주차장까지 공간 확장을 제시했다.
그는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정읍의 정신



과 건강, 지역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특화거리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읍다움을마시고 걷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읍시 장명동에 있는 쌍화차 거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전국 유일의 쌍화차 거리다. 정읍세무서 후문에서 정읍경찰서로 이어지는 450m에 이르는 길에 20여 개의 쌍화차 찻집이 영업 중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남원 청년들 마음 펴는 ‘1만원 주택’

빈집 리모델링해 11세대 공급…신혼부부 등 입주자 모집

남원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고자 월 1만원 임대료 “원피움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
“남원 피움하우스”는 ‘남원에서 청년들이 삶을 피우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은 남원형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브랜드다.
시에서 직접 빈집을 리모델링한 단독주택 3세대와 구 태전방직 기숙사를 리모델링한 다가구주택 8세대 등 공급세대는 11세대다.
입주 대상은 남원시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후 한 달 이내 전입이 가능한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다.
3가지 유형의 주택에 평균 면적은 66.6㎡(20평)이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책상, 의자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옵션이 모두 구비돼 있다.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1만원 사용료를 연납하면 된다. 기본 입주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고의 안내를 따르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획예산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 피움하우스를 시작으



리모델링을 마친 하정동 ‘남원피움하우스’.

로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만원주택, 반할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면서 “생애 주기별 다양한 인구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정착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유곡리·두락리서 가야 대형 고분 확인

은장 마구류 첫 출토 6세기 전반 추정…오늘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에서 가야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6세기 초 대형 고분이 확인됐다.
남원시가 18일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복원정비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추진했던 발굴조사의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는 국가유산청(정장 최웅천)의 허가를 받아 남원시가 추진하고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이 진행했다. 조사결과로는 27기의 고분(20·24호분)에서 가야 시대 지배계층의 상징물인 통형기대와 은으로 장식된 말 갖춤새가 발견됐다.
조사가 진행된 고분의 봉분은 직경 20m 내외이며 24호분에서는 주위의 주구(도랑)와 함께 봉분 축조 시 토제(흙독), 구획성토, 토괴(흙덩어리) 등의 축조기술이 확인됐다.
매장시설은 수혈식 석곽묘로 바닥에는 소형 할석과 천석을 깔아 시신을 안치하고 유물을 부장하는 시설이었다.
매장시설 내부에서는 그릇받침, 뚜껑있는 긴목항아리, 목짧은항아리 등의 토기류와 함께 은으로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출토유물.

장식된 재갈, 말띠꾸미개, 말띠드리개, 말안장, 말띠고리 등의 마구류가 부장된 상태로 출토됐다.
20호분과 24호분은 삼국시대 이 지역을 기반으로 발전한 가야 세력의 지배층 무덤으로 고분 축조 방법과 출토 유물 등을 미뤄볼 때 6세기 전반경의 고분으로 추정된다.
이번 발굴조사는 고분의 구조와 성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면서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 묘제 연구에 있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장날엔 무료 셔틀버스 타세요

매월 3일·8일 40분 간격 운행

고창군이 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창전통시장 장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버스는 ‘고창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으로 기존 고창터미널이 하나로마트 뒤편으로 임시 이전됨에 따라 전통시장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셔틀버스는 매월 각 3일과 8일 전통시장 장날에 월 6회, 오전 8부터 오후 4시까지 4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25인승 미니버스인 장날 셔틀버스의 운행 코스는 ▲고창임시터미널 ▲(구)고창문화터미널 ▲고창군청 ▲고창읍성 앞 정류장 ▲고창전통시장 동문주차장 ▲고창전통시장 남문주차장 ▲CU 고창보릿골점 등을 경유 후 다시 고창임시터미널로 돌아오는 순환 코스다. 이용은 무료다.

이와 함께 폭염 속 이용객들의 건강을 위해 임시터미널과 전통시장, 동문주차장, 남문주차장 등 주요 정류장에 1인당 1병씩의 생수가 제공되는 양심냉장고도 운영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 7개면 농자재판매장, 지역상품권 사용

고창군이 농협 농자재판매장 7개소를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추가 등록해 18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안’에서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 중 민간 농자재 판매소가 없는 면지역의 농협 농자재판매장 등에서도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고수, 아산, 성송, 심원, 성내, 신림, 부안 등 7개 면지역 농협 농자재판매장을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처로 추가 등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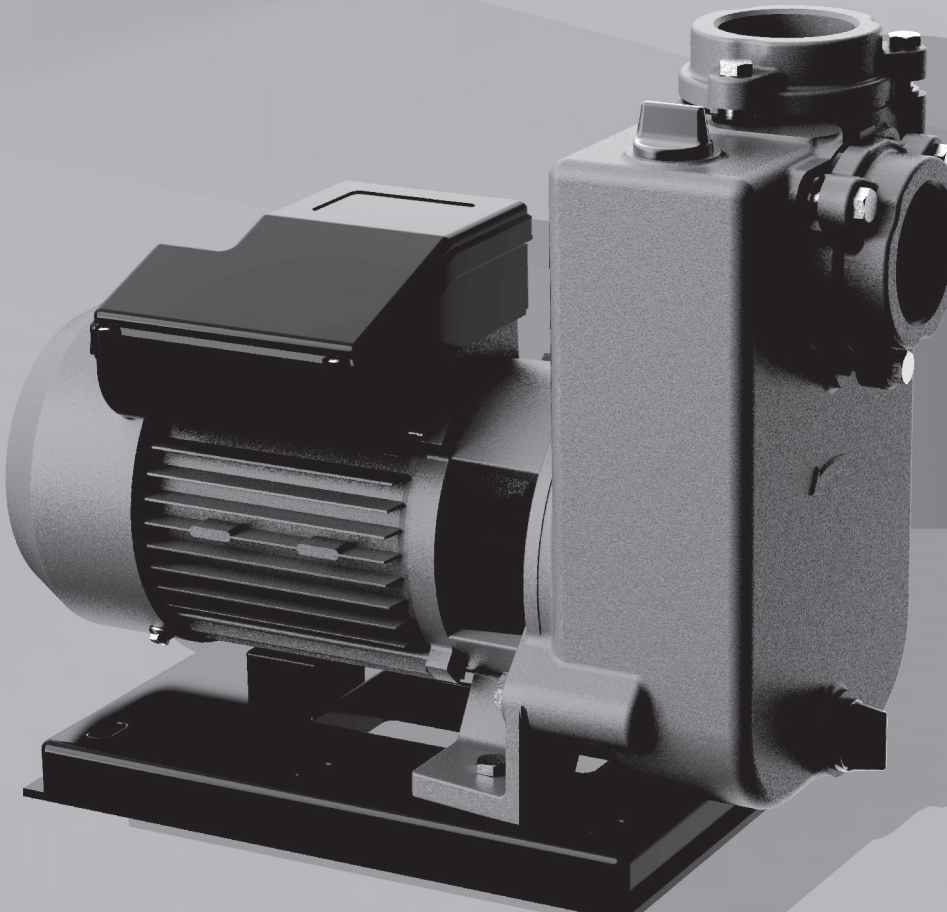
특히 오는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할 경

우 이번에 추가 등록된 농자재 판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2900개소, 군은 1인당 월 구매한도 70만원에 한해 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20% 특별할인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상반기 총 45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돼 군민들의 생활경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